

〈특집〉

『서울대학교 法學』 50년의 회고 - 창간정신

崔松和*

『서울대학교 法學』 창간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5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 법학에 입문하여 그해 6월에 창간된 법학지를 받은 창간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창간 5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학교 法學』 반세기를 회고함에 있어서 남다른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법학』 또는 『법학지』라고 불렀던 이름을 『서울대학교 法學』이라고 풀네임(full name)을 불러봅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 法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그리고 세계에 널리 『법학』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도 한자로 ‘法學’이라고 표기하는 법학전문 학술지가 한자 문화권의 다른 나라에 몇 개 더 있지만, 그 나라에서도 『법학』이라고 하면 『서울대학교 法學』도 생각할 정도로 이미 『법학』은 법학분야 전문학술지로서의 그 위상이 높게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法學』의 명칭을 보면, ‘서울대학교’는 한글로 쓰고 ‘법학’은 한자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문화권에 있는 우리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Seoul Law Journal*이라는 영문명칭을 붙이고 영문목차를 넣었던 것은 『서울대학교 法學』이 처음부터 국제적 학술지로 발전하려는 목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법과대학 1학년 때 의미 깊게 보았던 것 중에 하나는 겉표지의 앞면에 국문으로 “제1권 제1호 / 1959년 6월”이라고 표기하고 겉표지의 뒷면에 영문으로 “Vol. 1, No. 1 / June 1959”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책의 판권지에 표기된 발행일은 “단기 4292년 7월 7일 발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가 공식연호인 단기(檀紀)와 함께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년호인 서기(西紀)를 앞당겨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1권 제1호의 편집후기에는 『서울대학교 法學』창간의 정신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내실이 있는 실질을 갖춘 대학과 학문을 지향한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것이 법학창간의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편집후기의 뒷부분을 보면 “앞으로는 본지를 간행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임교수와 학생 및 법학을 전공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생을 당연회원으로 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생 및 강사를 임의회원으로 하는 「서울대학교법학회」(가칭)를 조직하려고 구상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해 12월에 「서울대학교법학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1959년 12월에 간행된 제1권 제2호에 게재되어 있는 「서울대학교법학회」의 회칙을 보면, 법학지의 발간주체가 「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 「서울대학교법학회」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겉표지 앞면의 아래 부분 발간주체의 표기를 보면, 제1권 제1호는 「서울대학교법과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제1권 제2호 에는 「서울대학교법학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편집후기는 앞의 내용에 이어서 “법학지의 내용은 학술자료, 판례연구, 서평 등으로 하지만 필자는 서울대학교 관련자로 국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서울대학교 法學』의 창간정신을 찾을 수 있다. 학문의 폐쇄성을 지양하고 학문의 개방성과 국제성 내지 보편성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권 제1호 편집후기를 보면, “앞으로는 판례연구, 특히 대법원 판례의 연구에 더욱 치중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법학연구소가 외국의 이론을 수입하는 데서 더 나아가 우리 법학을 발전시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우리 법학 한국법학을 지향한 것이 『서울대학교 法學』에 담겨져 있었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뒤에 많은 판례연구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창간정신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간된 법학지는 법문사가 발행처가 되어 시판을 했습니다. 가격은 700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책들이 ‘정가’, ‘시가’란 말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법학지는 그 가격을 ‘반가(頒價)’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생들 사이에는 이 ‘반가’의 의미가 무슨 뜻일 까 의문을 가지며, ‘반포가격’ 또는 ‘널리 배포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권 제2호에 보면 법학지 뒤부분에 법문사에서 간행되는 책과 박영사에서 간행되는 책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헌법책, 민법책과 함께 대학입시 관련 서적들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제2권 제1호의 가격(반가)이 800환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학생들로서는 100환은 무시 못 할 부담이었습니다. 법학지 제2권 제2호에 소개(광고)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영국의 K.C. WHEARE의 *Modern Constitution*을 배재식 선생이 번역한 『현대헌법론』이 900환이었고 황산덕 선생

이 번역한 벨첼의 『형법체계의 신 형상』도 800환 이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2,000환 정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비해 보면 법학지의 700환, 800환의 반가가 어느 정도수준인 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가, 시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널리 배포하는 가격’이라는 뜻으로 사용 한 반가에도 연구결과를 널리 공유하고자 하는 법학지의 창간 정신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문사에서 출판하여 시판하던 법학지는 제3권 제2호부터 ‘태서당인쇄주식회사’에서 인쇄를 하고 비매품으로 전환되어 배포되었습니다.

1962년 제4권 제1·2호를 합본하여 ‘정광현박사 화갑기념특집’이 간행되었는데, 유기천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권두사를 쓰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학문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며, 학문 내지 법학의 진흥을 통하여 국가 진흥의 길을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학문의 길은 문자 그대로 『荊棘의 길』이었고 가장 악조건 밑에서의 미약한 노력이었다는 사실, 이 나라의 재건의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사업이 학문 재건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지극히 성스럽고 지극히 크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사명감에 호응한 작은 사업의 하나가 바로 우리 법대의 법학지이다.”라고 법학창간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당시 11분의 법학지 評議員인 전임교수들이 생각한 국가재건은 해방 후, 그리고 6.25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는 길은 바로 학문의 진흥에 있다는 사명감에서 법학지를 창간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창간독자, 법학회 준회원, 편집보조위원, 편집위원, 필자 등의 지위에서 『서울대학교 法學』의 창간 및 발간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를 위한 정년 기념호까지 발간되어 개인적으로 무한 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법학지의 발간에 참여하면서 중점을 둔 것 중 하나는 법학지를 외국 대학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인 1960년대에는 법학지를 외국 대학에서 발간된 법학학술지와 교환하는 일이 법학지 발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중앙도서관, 본부, 법학연구소 그리고 법학도서관 등 여러 기관을 통해서 외국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지의 교환이 실질적인 학문의 교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法學』의 무궁한 발전과 법학지에 담겨져 있는 창간의 정신과 꿈이 미래에 실현되고 더욱 더 확장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